

6 깊어지는 경희대 골목상권 한숨

“현 상황? 죽고 싶어”
회기상권 70% 매출 ↓
국제 ‘마을’ 폐업 속출

이정민 기자 michellejm@khu.ac.kr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허지영 기자 jy000224@khu.ac.kr

#적막한 캠퍼스 주변. 학생들이 돌아오길 고대하는 이들이 있다. 경희대 주변 골목상권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대학가 골목상권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와 2.5단계를 넘나들며 기간이 연장되는 탓에 자영업자들은 점포 유지에 고역을 치르고 있다. 수익 감소를 넘어 이제는 생계유지에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우리학교 주변 골목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한적한 경희대 앞 골목
점심에 의원원 사람들만 반짝

“가게를 정리할까 고민 중이에요.”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3분만 걸어가면 나오는 음식점. 평소라면 긴 줄이 문 앞까지 늘어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식당 안은 텅하기만 하다. 사장 A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으로 격상되면서 손님이 정말 많이 줄었다”며 “주 고객층인 대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그나마 인근 회사나 경희의료원 쪽 직원들이 점심에 들러 매장을 겨우 유지하는 중이다. “우리 가게에 문제가 있어 손님이 안 오나 싶어 점심시간에 (경희대로를) 한 바퀴 둘러봤지만 우리보다 더 손님이 없는 식당도 많았다”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서울캠 주변 상권은 경희의료원을 방문하는 외부인과 직원들로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고 있는 눈치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가의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동아리 등의 모임 활동도 자제함에 따라 식당, 카페, 술집을 비롯한 외식업 매출이 큰 하락세를 보였다. “회기동 상권 매출액이 작년 대비 50~70%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동대문지점 권성우 지점장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나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

전 경희대로에 카페를 개업한 B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 씨는 “이 위치(경희대로)의 최대 장점이 대학가라는 점인데,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단점으로 전락했다”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국제캠 ‘마을’ 지역 상권
비대면 수업 직격탄 맞아

국제캠퍼스 인근, 학생들에게 흔히 ‘마을’로 불리는 이 지역 상권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다.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국제캠 내부에 위치해 있다. 외부에서는 마을로의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지리적 성격 탓에 대부분의 고객층이 우리학교 구성원이던 마을 상권은 비대면 수업으로 힘든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에서 ‘푸오코 카페’를 운영 중인 C 씨는 “마을 상권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지출을 빼지 않은 매출이 코로나19로 4분의 1로 줄었다”고 밝힌 그는 국제캠퍼스 인근 마을 상권을 두고 “올해 한 번도 열지 않은 점포가 있으며, 이미 폐업한 점포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C 씨도 점포 운영의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샐러드 같은 경우, 이틀에 한 번씩 야채를 발주하는데 남아서 폐기하는 양이 훨씬 늘었다”며 “원래 여름에는 8시, 겨울에는 해가 짧아져 6시까지만 운영했는데 이젠 하나라도 더 팔려고 토요일도 영업하고 시간도 전부 8시까지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채 값이 3배로 폭등했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도 조심스럽다”며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초심을 유지하는 마음을 학생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국제캠 마을 상권에서 ‘도스마스’를 운영하고 있는 D 씨 역시 “마을 점포들이 하나 둘 정리하고 있다”며 “우리 점포 역시 명맥만 간신히 유지할 뿐, 생활비 충당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제캠퍼스 속칭 ‘마을’ 상권은 순수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4분의 1로 줄어든 만큼 생계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배달 서비스로 위기 극복?
코로나로 계약 몰려 대기 중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장을 직접 찾기보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했다. 이에 대학가 점포들도 배달 서비스를 적극 도입했다. D 씨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홀 위주로 장사하고 배달을 해도 가까운 곳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외부 배달을 받지 않으면 장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C 씨는 “코로나 사태 이전 한 달 정도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건수가 적어 수수료와 배달대행료를 떼면 적자가 나는 구조라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배달 요청이 많아지면서 배달업체와 재계약을 시도한 C 씨는 “코로나로 인해 계약이 풀리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져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달 서비스가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뉘즈리도 있다. 이전에는 배달로 장사가 잘되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배달 서비스가 과포화되자 배달로 인한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2주간의 영업 금지
“매출은 0인데, 고정비는 그대로”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재확산되면서 8월 30일부터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바 있다. 일반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이 강화됐다. 특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운영마저 중단됐다. 스터디카페와 PC방처럼 확산 가능성이 높

다고 판단되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영업을 금지한 것이다. 2.5단계 격상은 일주일 연장되면서 제한 금지 시설은 2주 가량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상인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국제캠 정문 건너편의 ‘디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E 씨는 현재 상황을 묻는 질문에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죽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E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보름 전에 스터디카페를 개업했다. 하지만 2주 동안의 영업금지로 실질적인 영업 날짜는 한 달이 채 되지 못했다.

또 다른 스터디카페인 ‘스터디플로우’ 역시 “2주 간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매출에 큰 공백이 생겼다”고 밝혔다. 국제캠 스터디카페 이용자의 대다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